



# 전기기기 공업계

## 전기기기계의 현황

### 1. 개 황

1960년대에 이르러 전기기기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1910년대 우리나라 전기계의 초창기에는 몇개되지 않는 적은 공장에서 간단한 제품이나 부속품이 생산되는데 불과하였다. 이것은 전력이 부족한 외에 외래품의 범람으로 전기기기업의 발전이 저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1955년까지 계속되었다. 해방당시부터 1955년까지의 전기기기의 주요제품으로는 간단한 배전기구와 소용량의 변압기, 전동기 등에 생산이 국한되지 아니할 수 없었다. 1956년 이후 외원에 의한 발전시설의 확충계획과 노후전력시설의 개보수사업이 추진되면서 전기기기의 생산이 활발하여 지는 듯 하였으나 1960년도에 이르러 전력사업의 확충이 일단락되고 외래품의 국내시장법함으로써 전기기기의 생산은 일시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61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제정되어 외래품의 도입이 근절되면서 부터 국내전기기기제품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었다.

더구나 국내전기기기제품은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전체적인 생산이 증가되고 「무제한송전」이 실시됨으로써 그 공급이 증가 되었다. 이러한 요인이야 말로 전기기기공업

의 발전을 위해 전환점을 가져온 것이다.

동시에 전기기기계는 외자와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1962년 이래 전기기기계에 도입된 외자는 7백10여 만불로서 이중 560여만불은 서독으로부터 잔여 1백50여만불은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다.

6개의 전기기기생산업체가 미국, 일본 등의 대기업체와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에 전기기계의 수출이 격증하고 있는 것은 전기기기의 생산량이 늘어가는 외에 질적으로 우수한 신제품과 대용량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데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전기기기의 생산지수는 1960년 33.7이었던 것이 1969년(1965=100)에는 337.2로 증가하여 동 기간 중에 12배가량 확대되었다.

정부는 전기기기공업을 적극지원하여 제 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 수출대체산업으로의 육성을 시도하고 있다. 1969년에 정부는 전기기기중 8개의 품목을 정하여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바 그 품목은 초고압변압기, 전력용 「콘덴서」, 각종 가전기기 등이다. 또한 정부는 부분품에 대한 표준화로 주요제품에 대한 기준율을 설정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의 대량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 2. 전기기기생산품

전기기기의 생산품을 대별하여 본다면 산업용전기기기과 가정용전기기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61년 이래 정부의 육성정책에 지원을 받은 전

기기의 생산고는 산업용 전기기구나 가정용전기기기를 막론하고 상당한 수준에 까지 생산이 증가된 점에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가정용전기기기의 생산량은 가계소득의 증가, 외래품의 근절 등으로 산업용전기기기의 생산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전기기종에서 변압기의 생산은 1962년 이래 계속증가하여 왔으며 1969년도의 동제품의 생산고는 1백28만여KVA로써 1968년도의 동제품의 생산량인 40만9천여KVA의 3배에 달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의 변압기 생산은 지난 몇년간 계속 증가하여 국내수요를 충족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1969년도에는 45만7천볼트의 수출실적을 파시하기에 이르렀다. 굴지의 전기기기생산업체인 한영공업주식회사는 1969년말 「154Kv 초고압변압기」제작에 성공함으로써 대용량변압기 개발에 개가를 올림과 동시에 연간 50여만볼트의 외화를 절약하기에 이르렀다. 변압기의 최대수요처인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국내생산품으로 자체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이룸으로써 변압기야말로 수입대체효과에 크게 기여하기에 이르렀다.

변압기 이외의 전기기기를—전동기 유입차단기 전자「스윗치」, 적산전력계등은 그 생산량이 1962년도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전동기의 예로 볼 때 1969년도의 생산량이 약 35만마력에 이룸으로써 1965년도의 생산실적에 비하여 거의 2.5배의 성장을 시현 하였다. 이와같이 전기기기의 생산이

증가한 것은 각업체별로 생산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특정외래품의 수입을 억제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유입차단기와 유입개폐기는 팔복할 만한 생산증가를 이룩하여 국내수요를 충족하기에 이르렀다. 1969년도의 유입차단기의 생산량은 226개였으며 유입개폐기는 4,964개였다. 한편 1964년까지는 생산도 되지 못하였던 적산전력계 생산이 비약적인 성장으로 수입대체산업으로 각광을 받기에 이른것이다. 1969년도의 적산전력계 생산고는 47만 1천여개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산업용전기기기의 생산은 지난 몇년간에 급진적으로 성장하였다. 수입에 의존하던 대부분의 제품은 이제 국내생산품으로 대체하기에 이르렀으며, 국내수요자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개선이 되리라 기대되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용전기기기의 생산도 경이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선공기의 생산고를 볼 때 1960년도의 시작기를 거쳐 1965년도에 2만3천여대, 1969년도에는 17만여대로 그 생산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외래품이 억제된 반면에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무엇보다도 발전설비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66년도에 생산이 시작된 전기냉장고 역시 1968년도에 5만여대를 생산함으로써 1966년도의 2천7백여대라는 생산량에 비하여 월등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구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한 백열등은 점차

주요 전기기기의 생산고

(표-1)

연도	1965	1966	1967	1968	1969
전 동 기 (마 력)	130,040	249,576	214,251	220,038	358,652
변 압 기 (KVA)	175,587	307,366	335,503	409,084	1,282,965
유 입 차 단 기 (개)	117	198	93	110	226
전 자 스 윗 치 (개)	4,230	6,601	2,448	3,276	4,964
유 입 개 폐 기 (개)	237	495	2,154	3,716	3,106
Electrical Hot Plate(개)	64,330	55,902	64,925	26,292	1,820
냉 동 기	—	—	19	209	140
가 정 용 냉 장 고 (개)	—	2,722	3,866	50,675	11,110
적 산 전 력 계 (개)	182,761	164,470	217,337	373,016	471,418
Motor Fans (대)	23,228	53,130	104,106	150,972	170,180
축 전 지 (개)	30,866	48,314	46,506	93,548	124,036
전 전 지(1000)	14,346	23,386	22,485	21,759	31,163

자료: 한국산업은행

로 형광등으로 대체되었다. 형광등의 생산량을 고찰하여 보면 1962년도에 42만9천여개이었던 것이 1969년도에는 5백60여만개로 증가하여 거의 10배에 달하는 생산증가를 시현한 것이다.

· 배미수출분야에서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이 「X-Mas」 장식용 전구분야였다. 1967년도에 만도 9천7백여만개가 생산되어 1965년도분 대비 9배이상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고속광등을 제외한 모든 전구는 국내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기기가공업은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과 외래품의 수입금지로 인하여 점차 그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기술의 개발이 선행된다면 전기기기가공업분야야 말로 수입대체산업분야로 크게 각광 받게 될 것이다.

### 3. 수입 및 수출개황

시설투자가 완전하지 못하고 기술의 도입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국내 전기기기계의 실정기므로 상당한 량의 전기기기를 수입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1966년까지는 국내의 생산증가로 수입량은 차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1966년경부터 국내수

요가 격증됨에 따라 수입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수입대체효과를 기하는 제품도 그 생산량에 비하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다.

발전기의 경우를 들어 본다면 1963년도에 2백80여만불 상당의 수입을 하였으나 1968년도에는 1천600여만불 상당의 발전기를 수입하지 아니 할 수 없었다.

1965년에 27만여불로 그 수입량이 감소되었던 천동기는 1968년에 360여만불로 급상승함으로써 1963년의 수입액인 76만여불의 366%에 달하는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몇개의 전기기기제품은 계속하여 수출에 있어서 상승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의 향상용 기함으로써, 특히 「X-Mas」장식용전구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에 크게 기여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체 수출량중에서 변압기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68년까지 변압기의 수출은 69만여불까지 상승

전 기 기 기 의 수 출 실 적

(표-2) (단위: 1000불)

연 도	1 9 6 6	1 9 6 7	1 9 6 8	1 9 6 9
변 압 기	412	569	693	457
선 풍 기	7	—	13	193
(가정용) 냉 장 고	—	—	—	381
냉 방 기	—	—	—	26
적 산 전 적 계	8	91	—	—
도 타	—	1	—	—
배 전 기	227	44	6	—
X-Mas 장식용전구	914	1,226	2,700	192

자료: 재무부

전 기 기 기 의 수 입 실 적

(표-3) (단위: 1000불)

연 도	1 9 6 3	1 9 6 4	1 9 6 5	1 9 6 6	1 9 6 7	1 9 6 8
발 전 기	2,838	3,191	2,724	1,353	5,235	16,659
모 타	766	1,711	277	547	3,059	3,570
가 전 가 기	345	159	184	294	826	1,967

자료: 재무부

하여 1966년 대비 18.2%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1967년의 56만여불의 수출실적에 비하여 21.8%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선동기는 1968년에 1만 3천여불이었던 것이 1969년에는 19만여불로 늘어났다.

1969년에는 냉장고와 냉방기가 처녀수출되어 각각 38만여불과 2만6천여불의 실적을 올렸다.

모든 전기기기의 수출실적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던 「X-Mas」장식용 전구는 1967년의 실적에 배가되는 2백7십여만불의 실적을 1968년에 기록하였다.

#### 4. 수요 전망

전기기기의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원인중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전력의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전력생산고는 1969년도의 1629MW에서 1976년도에는 7천5백22MW로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전기기기의 주요는 점차로 확대되어갈것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감에 따라서 내구소비재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 2차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가전기기의 수요가 확대될것 만은 틀림 없는 사실인 것이다.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원을 개발하여 감에 따라 구매하게 될 발전기, 변압기, 배전기 등을 고려한다면 수요가 급증할 것만은 자명한 것이다. 동사의 전원개발계획에 의하면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개년간 1백3십5만마력의 전동기, 4천여MVA 전력용 및 배전용변압기를 필요로 하고 4백7십여개의 차단기, 1백4십여만개의 적산전력제를 제2차 전원개발계획기간내에 조달하여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해외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몇개의 제품은 조만간에 해외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므로 전기기공업의 활로가 될지 모를 것이다. 현재 수출이 전망되는 제품으로는 적산전력제, 변압기, 「X-Mas」 장식용전구 등이다.

#### 5. 원자재문제

모든 원차재중에서 전기동, 철판, 강판, 「페어링」, 「체인트」는 국내조달이 가능할 정도의 자체생산을 할 수 있으나 규소강판, 절연물, 고속 「페어링」, 동판, 정밀부속품 등을 아직도 해외공급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태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규소강

판과 절연물에 대한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입원자재가 변압기, 전동기, 적산전력제 제조에 사용되는 비율은, 1967년 24.3%에서 1969년에 21.4%줄어 들므로써 수입원자재가 상기 3개 품목제조에 사용되는 비율에 있어서 2.9%의 절감을 가져왔다.

다시 말해서 변압기생산에 있어서 국내원자재가 1967년에 70% 사용되던 것이, 1969년에는 73%로 향상되었으며 전동기에 있어서는 1967년에 73%이었던 것이 1968년에는 74%로 증가하였고 적산전력제는 이 3개의 품목중에서 가장 높은율을 나타내어 1967년에 87%이었던 것이 1969년에 89%로 증가하였다.

1969년에 63개의 주요업체에서 사용한 수입규소강판은 1천6백여톤으로서 1967년의 1천1백5십톤에 비하여 39.1%의 증가를 이룩한 것이다. 이것은 1969년에만 56여만불을 소비한것으로써 동기간중에 잔여 절연물에 대한 수입액총액은 3만5천불에 불과하다.

한편 수입원자재에 대한 도매가격은 안정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66년부터 1969년에 걸쳐 가장 등세를 보인 것이 T-90(0.35—0.3mm) 규소강판이었다. 그것은 1969년에 톤당 15만9천여원으로 가격이 상승됨으로써 1966년의 톤당 12만8천여원에 비하여 24.2%의 등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 강세를 보인 것은 1967년도로써 1966년에 톤당 12만8천여원에서 15만5천여원으로 급등한 것이다. 이후로는 가격안정추세를 보여 1969년도의 톤당 규소강판의 가격은 1968년에 비하여 0.6%의 등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규소강판의 다른 종류는 비교적 T-90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T-135만은 하락하여 1968년에 톤당 13만6천여원이었던 것이 1969년에는 5.1%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자체조달이 가능한 전기동, 강판, 선철의 가격추세는 약간의 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이다. 전기동(99.96%)의 도매가격은 톤당 48만8천원으로써 1969년의 톤당 41만7천원에 비하여 16.9%의 등세를 보이고 있다. 강판(3.2mm, 90cm, 189cm)의 도매가격은 1966년에 4만2천여원이었던 것이 1969년도에는 4만4천여원으로 등귀하여 4.7%의 오른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조달이 가능한 원차재중에서 제일 커다란 오른세를 보인 것은 단지 선철로써 1966년에 톤당

1만9천원이었던 것이 1969년에는 2만6천원으로 등  
귀함으로써 39.5%의 상승율을 나타 내고 있다.

(표-4) 전동기 수요상정 (단위: 1000마력)

품명	연도			
	1969	1970	1971	계
전력 판매상정 (1,000MWH)	4,651	5,474	6,286	
전동기 수요상정	437	459	454	1350

자료: 한국전력주식회사

이와같이 원자재의 가격추세는 수입품이나 국내  
생산량을 막론하고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일반상품이나 국제시장의 가격에 비해  
서는 결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국내에서 조달되는 원자재가 가격의 오름세를 보  
인 것은 국내 철강공업계가 본체도에 오르지 못함  
으로써 충분한 철강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요인은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그  
구매기간과 선적기간의 장기화로 유통자금이 장기

적으로 저장되어야 하는 점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  
는 것이다.

(표-5) 부분품의 국산화비율 (단위: %)

품명	연도		
	1967	1968	1969
변압기	70	70	73
전동기	73	73	74
적산전력계	87	87	89
평 균	76.6	76.6	78.6

자료: 한국산업은행

원자재의 수입실적

(표-6) (단위: 1,000불)

품명	연도		
	1967	1968	1969
규소강판	335 (1150톤)	369 (1200톤)	560 (1600톤)
절연체	28	37	35

자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 수입 규소강판의 가격추세

(표-7)

(단위: 톤당 1000원)

품명	연도			
	1966	1967	1968	1969
T-90 0.35-0.3m/m	128	155	158	159
T-105 0.35-0.3m/m	128	143	142	149
T-115 0.35-0.3m/m	128	133	137	141
T-135 0.3-0.5m/m	120	127	196	129

자료: 한국은행

### 국산 원자재의 가격추세

(표-8)

(단위: 톤)

품명	연도			
	1966	1967	1968	1969
전기동 (99%)	417,355	390,141	450,709	488,000
강판 (3.2mm, 90cm × 180cm)	42,800	42,800	42,900	44,800
선 철	19,000	19,833	25,000	26,500

자료: 한국은행

## 7. 시장성과 가격추세

보편적으로 전기기기제품은 주문에 따라 소비자  
에게 직접 공급된다. 변압기공급량의 90% 이상이  
이러한 유통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좋은 예가 된다.

반면에 가정용전기기기는 생산공장→도매상→소매  
상이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결론적  
으로 말해서 산업용전기기기(중전기)는 주문생산  
이며 가정기기는 시장성에 입각한 계획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산업용(중전)전기기기의 시장

조사는 단순하고 제품용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소한도의 이윤이 보장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가전기기의 생산업체들은 적대적망을 구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중간이윤의 배제를 위해 부실하고 있는 것이다.

1969년도의 전기기기도매가격지수는 128.1이었으나(기준년도, 1965년:100) 일반상품가격지수 134.8보다 적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사실이다.

전기기기제품이 비교적 타상품에 비하여 가격의 안정추세를 보인중에서도 몇종의 제품은 (10Kva 3.3-6.6Kv)의 가격이 6만2천원인 것은 기준년도인 1965년의 3만4천여원에 비하여 77.8%의 높은 등귀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괄목할 만한 사실로

서 원자재의 가격등귀와 임금상승율이 다른 요소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전동기, 선풍기, 냉장고의 가격은 1965년도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11.0%, 55.0%, 4.0%가 인상된 것으로서 1969년도의 가격지수에 반영되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기기기공업계의 자본대비 순이익률은 5.39%로써(1968년) 일반제조업분야가 이룩한 2.68%보다 2.71%나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요인이야말로 1964년 이래 전기기기업계를 성장시킨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높은 수익율은 지속될 전망이 뚜렷하고 국제경제구조의 확대에 따라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도매가격추세

(표-9)

(단위: 원)

품명	연도				
	1965	1966	1967	1968	1969
전동기(1Chp, 220V, 60 Cycles 4poles)	49,000	47,778	45,000	45,000	54,000
변압기(10Kva 3,300-6,600V)	34,864	49,250	49,250	51,848	62,000
선풍기(30cm, 40W, 1,400r.p.m.)	7,740	8,307	10,156	11,500	12,000
냉장고(120liter, 95W)	72,000	72,000	80,222	92,000	104,000
전구(incandescent, 100V, 30W, 25bulbs)	350	356	502	620	600
형광등(φ-20d)	97	108	138	127	160
전기기기의 도매가격지수	100.0	108.9	123.2	125.3	128.5

자료: 한국은행

## 7. 전망과 문제점

전제조업분야에서 이렇다할 비중을 차지 하지 못하였던 전기기기공업분야는 1960년대에 이르러 발전설비용량이 늘어 나고 특정의태품의 도입이 금지되면서 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더구나 중전기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에서 「플랜트」를 도입하고 기술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용량기기의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가정용전기기기분야는 대부분의 제품소비량이 수입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몇몇 제품은 수출하고 있는 선에 까지 도달한 것도 사실인 것이다.

전기기기공업분야는 제 2차 경제개발계획이 수행됨에 따라 무한정한 공급처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전망을 갖게된 전기기기공업계는 그 무한정에 가까운 공급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난관을 극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산설비와 기술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몇몇 제품에 있어서는 현재의 생산시설로서도 충분히 국내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몇몇 제품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비개선과 고도의 기술증강을 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제품의 가격에 올라갈 것이며 국내의 수요에 응하지 못할뿐더러 수출량도 확대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시설을 증강하고 기술의 개선을 가져온 대책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앞될 것이며, 정밀제품이나 발전

기와 같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와 숙련공을 확보하는 조치도 아울러 취해져야 할 것이다.

전기기기공업분야가 당면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고도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원자재의 공급문제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중에서 상당한 비율이 국산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고도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부분의 원자재는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그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원자재의 도입에 있어서 기업의 운영자금이 상당한 기간동안 사정되어야 하는 것은 또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내에서 조달될 수 있는 원자재는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고가라는 점에서 운영자금을 동결하는 주요한 요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제반점을 고려한다면 전기기기업체가 활로를 찾기 위하여는 원자재의 공급이 원활하여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편 집 부)

## 생산실적과 수출입실적

### 1. 변압기

#### 가. 생산실적

현재 국내의 변압기생산실적은 대용량변압기틀 제외하고는 국내수요를 충족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1966년 한국공업규격(KS)의 제정에 따르는 규격의 정비, 주남품대상인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검사기준의 강화와 시험시설의 완비, 각제작회사의 자체시험시설의 설치 등으로 기술향상의 토대가 이루

어지게 되었으며, 1963년 권철심변압기 제작을 위한 기술도입으로 배전용주상변압기에 있어서는 외국의 제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룸으로써 국내수요의 전량을 공급하게 된 데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전력용변압기의 설비용량은 1968년말 현재 2,421MW로써 당해년도의 발전설비용량인 1,274MW의 약 1.9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력용변압기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배전용변압기개발에 따르는 기술향상으로, 국내 대기업체에서 제작이 개시되어, 현재 66Kv, 20,000KvA 級 및 154Kv, 40,000Kv급까지의 전력변압기가 생산되고 있다.

각종 변압기의 생산실적은 <표-1>과 같으며 생산대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대용량용량이 증가함에 그 원인이 있다.

변 압 기 생 산 량

(표-1)

연 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구 분								
전 력 용 변 압 기 (대)	—	—	—	2,475	1,190	1,476	1,958	903
주 상 변 압 기 (대)	—	—	—	11,370	12,185	13,632	12,323	14,490
계 (대)	11,624	13,430	11,426	13,845	13,375	15,108	14,281	15,393
생 산 액 (1000원)	—	445,808	—	—	834,449	—	—	—

자료 : 상공통계월보(1969.9)

광공업선세스(1963~1966)